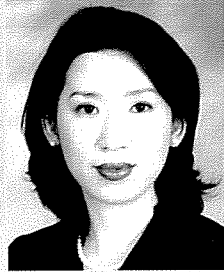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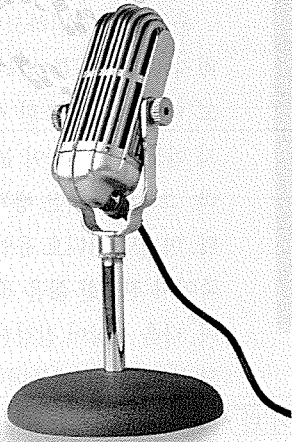


사회복지사, 봉사부문 커리어 발전시켜 참여해야



| 박인숙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부장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웰빙(Well-being)'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모두 웰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웰빙은 소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많아지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웰빙은 단순한 소득 타령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차원의 웰빙이라면 1970년대의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가사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하고 있지만 21세기에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가 바로 볼런티어(Volunteer), 자원봉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은 단순히 국민소득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경제소득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문화수준을 함께 보는데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사회참여(자원봉사)를 의식수준 잣대로 삼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자원봉사(volunteer)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국민들의 사회참여의식이 고취되었는데 지난 2005년 8월에는 세계 최초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자원봉사

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2006년 2월 5일 법시행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기본법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자원봉사 진흥시책의 기본방향에서 무보수성, 자발성의 원칙과 민관협력 아래 자원봉사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권장,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정치활동, 선거운동 행위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복지,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교통, 재난, 문화, 예술,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해외봉사 등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다섯째,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위험에 대한 보험보장까지를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법 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질과 역량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가 일부 한가한 사람들의 여가활동이나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고상한 취미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이 앞당겨질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원봉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소관부처에 따라 각기 운영

이런 법 제정과 함께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첫째는 특별시·광역시·도 지역과 시·군·자치구 등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있는 250개의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둘째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별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고,

셋째로는 청소년위원회 산하 전국 16개 광역시도에만 설치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이렇듯 소관부처에 따라 유사한 이름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지역자원 활용 등의 차원에서 향후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중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1개씩 설치, 전국적으로 250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소관)는 주민들의 참여 용이성을 위해 특수전화번호인 '국번없이 1365'를 운영하고 있다.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활동을 하자'는 의미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 반전화로 국번없이 1365(예 : 부산시 남구에서 일반전화로 국번없이 1365→부산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연결)를 누르면 그 지역(기초지역으로 시, 군, 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로 연결되며 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광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연결을 원할 경우 1365앞에 지역번호(예 : 02-1365→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누르면 광역자원봉사센터가 연결된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훈련,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홍보, 자원봉사관련 조사연구와 자원봉사자 포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인센티브적인 부분 등 자원봉사전반적인 사항을 다 총괄하며,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자 관리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자원봉사 수요처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수급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의 분야도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활동이 우선되다 보니 자원봉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노력봉사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범위도 법에서는 15가지 분야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활동,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활동, 청소년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인권옹호, 범죄예방, 교통, 재난관리, 문화예술, 부패방지, 공명선거, 국제협력,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으로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요구 확대 전망

이렇듯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관리자(직원)의 전문성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센터가 단순히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활동처에 연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교육, 홍보, 전산관리, 포상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자원봉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실습이라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이 아닌까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가 주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규정을 따를 예정(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행정자치부)이고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늘어날수록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수도 비례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센터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끝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센터 근무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선 자기만의 커리어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해보기를 조언한다.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자원봉사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직접 체험해봐야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의 욕구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실습이나 자원봉사활동은 센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준비된 능력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